

2021년 10월 3일 설교

본 문 : 갈라디아서 6:6~9

제 목 : 뿌리고 거두고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지, 요행수나 바라고 운이나 바라면서, 자신의 할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한탕주의 정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 놓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 놓고 불순종하고 그대 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업 신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비단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수만 바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 간 다니엘과 히스기야 왕을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다니엘과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기도**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히스기야 왕을 한 번 살펴볼까 요?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았습시다. 죽을 위기에 놓인 거죠. 이 점에서는 다니엘이나 히스기야나 똑 같은 겁니다. 단지 다니엘은 사람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해진 것이고, 히스기야는 직접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다 같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 초점은 무엇이었느냐? **행함**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심과 진실로 행하였던 것, 선하게 행하였던 것,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언제 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히스기야는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했다 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언제나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왕이었다면, 기도 내용에서 이 부 분이 첨가되었어야 하겠죠. **"하나님! 내가 언제나(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 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 로 간절하게 진심과 전심으로 올려드린 그 단 한 번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큰 위로와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사람 봐 가면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마다 적용하는 기준 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 봐 가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믿음도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생각에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 게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적용점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심기만 했어도 저절로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 가꾸고 보살 펴주 어야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이건 한 영혼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적용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적용점, 이렇게 해서라도 빨 리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용점. 이게 다르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라도 다니엘처럼 시간을 붙잡아 놓고, 구별된 시간에 정성으로 올려 드렸던 기도 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비록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진실, 우리의 전심, 눈물 흘리며 간곡히 주님께 구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도 감동하실 수 있다면 기도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들이 수두룩한 내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맘이 굴뚝같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2021년 10월 10일 설교

본 문 : 창세기 3:9~10

제 목 :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담을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데 아담은 숨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아담을 이렇게 갈라 놓았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한순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전후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사탄은 어떠한 영물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기 위해 이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뻐하길 원하셨고 언제나 대화 나누시길 즐겨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늘한 저녁이 되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창 3:8)¹⁾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문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과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날은 저녁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가 떠오르면서 하루가 시작되지만 성경에서는 해가 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늘한 저녁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마주하시고 하루를 돌아보시며 새로운 날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동물과 새들 고기들, 모두 다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큼은 절대적으로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²⁾ 세상은 점점 더 흥흥하게 변해 갑니다.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사탄은 점점 더 치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명령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지시도 목살하고 끊어버립니다.

모든 일에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습니다. 전쟁에도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고 사업에도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도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믿는 자들을 공략할 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격적인 전술을 쓰다가도 어떨 때는 “허허실실” 야금야금 접근하여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예 노골적으로 공격적으로 유혹합니다.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탄은 의심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불신하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숨기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도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도 그걸 두려워해서 너희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한 거야”³⁾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또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도 같은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아담과 하와가 말려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귀를 막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이상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다시 쳐다보게 됩니다.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모든 죄 된 것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도록 금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울무와 유혹에 언제나 깨어 있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물리쳐 주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개역개정]

2) 창세기 2장 17절.

3) 창세기 3장 5절.

2021년 10월 17일 설교

본 문 : 신명기 30:15~20

제 목 : 우리 앞에 놓인 생사화복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절대적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이게 하신 생사화복을 그냥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의지와 선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 화를 주시면 화를 받는 것이고,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죽으라 하시면 그냥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인가? 아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태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로봇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령이 되게 하신 이유는 **교감**을 느끼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감에는요, 부탁이나 당부가 들어가 있고, 때론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동등 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면이나 당부가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명령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이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의 입장에서 ‘예기치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고된 사건’과도 같은 겁니다.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해서 그냥 ‘재수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냥 운이 없고, 어쩌다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보통의 일반적 상황에서는 힘드니까, 그런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감당할 만한 사건과 사고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야지만 깨닫고 돌아오거든요.

소 잃기 전에는 외양간 안 고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다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맞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살기가 버겁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없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돌이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선민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미 이들은 전적이 있기에 앞으로도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유전 DNA가 있는지, 금송아지 우상부터 시작한 이들의 거역함이 바알신, 밀곰, 그모스, 몰렉, 태양신 숭배 등, 아주 전방위적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샅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종교성과 성향을 잘 알고 있으셨기에, 하나님이 18절 말씀과 같이 선포하신 겁니다. “**돌이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자 하는 자녀가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맘을 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진노하시려고 하셨다가도, 저주하려고 하셨다가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선택하시고 집중하십시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이냐? 이젠 우리의 선택입니다. 흐트러졌던 내 신앙을 다시금 고쳐 매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10월 24일 설교

본 문 : 욥기 42:10~17

제 목 :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던져지면, 하나님은 그 때부터는 더욱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던져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겁니다. 응답의 때를 앞당길지, 유보할지.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그 영혼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방식과 방법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신 거예요. 과정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욥의 모습이며, 어쩌면 우리와도 다른 욥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원망 잘하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임할 때나, 시험이 닥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전에, 원망부터 하고, 누구 탓부터 먼저 하잖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부터 그랬어요. 남 탓하기 좋아하고, 거슬러 하나님 원망도 하고.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 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때, 찬송 받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매 순간마다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올려 드리는 찬송에도, 깊이가 있고,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요. 영무새처럼 입만 벌리고 따라 부르는 찬송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깊은 감동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송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죠. 자신에게 상처주고,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시험과 고난은 끝났다. 이제는 너에게 축복을 더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방점을 찍어 주시는 겁니다. 육신이 연로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터닝포인트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어떤 보상을 하시고, 어떤 축복을 더하시는지 한 번 보십시오. 먼저는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42장 16절을 보면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라고 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중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140년 장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42장 9절을 보면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찾아와 화해를 했고, 11절을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형제, 자매, 친지들이 찾아와 위로하며, 식탁을 함께 하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42장 7-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중재에 나서 욥의 친구들을 야단치시고 욥과 화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재하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도 관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 입장을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체휼(體恤)⁴하게 하시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다고 했고, 15절을 보면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했고, 42장 6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시련, 고통, 절망, 좌절, 배신, 슬픔을 겪으면서 욥은 체험적 신앙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념적이고 이론적이었던 신앙이 눈으로 뵈는 체험적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모든 것이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진심으로 바랄 것입니다. 욥과 같이 물질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터닝포인트가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4) 체휼(體恤)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는 것. 함께 체험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同情). sympathetic.

2021년 10월 31일 [종교개혁기념주일] 설교

본 문 : 하박국 3:1~2

제 목 :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를 본다고 할지라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암담하기만 한 갑갑한 현실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신앙, 도덕의 밑바닥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길의 진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진솔하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로 부흥케 하소서”**

그렇다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과연 어떤 부흥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의 부흥입니다.

하박국은 두 번이나 놀라운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는 나쁜 소문의 절망사건이며, 또 하나는 좋은 소문의 희망사건입니다. 먼저 **3장 16절**에 있는 나쁜 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고통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죠. 얼버무리지 않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고,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 육신에 빗대어서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에게 들린 세상 소문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희망은 없습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랄 소문 희망의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성도님들! 주께 대한 소문은 모두 놀라운 소문들입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신 사건이나,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 등을 먹이신 사건이나, 이방의 나라 왕들을 제압하고 승리한 사건하며... 이 모든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며, 절대 헛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사건은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사건이며,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삶이 기적이 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주의 손길이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펜스를 철저히 쳐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부흥을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공허의 부흥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공허를 잊지 마옵소서”**

공허이란 하나님 사랑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공허히 여기는 마음은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자비보다 더 깊은 사랑이며 동정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공허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제목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기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공허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허가 없다면 부흥도 없습니다. 신앙의 부흥, 육신의 부흥, 관계의 회복, 간구함의 기도제목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 먼저 올려 드릴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허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공허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허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은혜도 없고, 기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의 부흥을 구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허의 부흥을 구하세요. 몸 된 이 교회도 기적의 부흥과 공허의 부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복교회인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11월 7일 설교

본 문 : 마태복음 6:9~13

제 목 :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제자들이 여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라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외우고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고백할 때가 많아요. 타성에 젖어, 습관에 젖어,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 그리고 명령과 분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셨을까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부르고, 간절히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찾고, 구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능히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부족한 걸 당장이라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려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시고 계십니다. 기도 한다고 해서 양식을 즉시 하나님이 주시거나, 기도한 대로 그 어떤 것이 내 눈앞에 완제품처럼 주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사건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관계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전제를 붙이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 즉, 내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가져다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시험 속에 빠져 있다면, 악함 속에 빠져 있다면 우선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험은 악과 관련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와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즉 사탄이 주고자 하는 유혹의 시험, 여기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시험에서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4일 설교

본 문 : 이사야 55:1~3

제 목 : 들어가도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세 절의 말씀 속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뭔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들어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돈이요? 없어도 된대요. 그냥 무료입장입니다. 물을 사든, 포도주를 사든, 젖을 사든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도, 그냥 와서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여기서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죠. **“값 없이”** 라는 표현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는 은혜**입니다. “값 없는” 은혜란 결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어는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서 내 곁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니 들어가려 하지를 않아요.

복음이 너무 쉬운가요?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너무 편한가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에 매력을 별로 못 느끼시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의 값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예요. 그런데 참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가 바뀌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교회를 그리워하며, 혼자라도 와서 교회를 둘러보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그레 보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 하느냐”** 이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연상한다면, 2절 말씀에서는 그러면서도, 삶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허탄하고 망령된 구습을 좇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며 책망입니다. 한 마디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책망인 겁니다. 우리는 “방탕” 하면 술 먹고, 노름하고, 여자나 쫓아다니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이런 삶을 가리켜 “방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방탕(放蕩)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삶은 방탕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향락에 빠져 살았기에 방탕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예요. 그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은 시간을 아낄 줄 몰랐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부요하게 하실 수 있고,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것을 다 망각하고, 허탄하고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책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 번 반추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시간들로 내 삶을 채우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3절 말씀은 회복과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영혼이 살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정말 이걸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까지 도장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겠다”** 라는 언약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같은 언약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디로 갈지,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비대면이 아닌 대면의 예배입니다.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와 들으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신 이 성전에 나와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지금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까? 그리해야만 영혼이 살고,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 문 : 디모데전서 4:4~5

제 목 : 감사로 받들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안될 줄 알면서도 작정하고 덤비면 상대방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덤벼드나' 순간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작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서도 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덩어리가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밥 한 그릇을 대할 때나 물 한 잔을 대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며칠만 있어 보십시오. 그 동안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밥 먹는 거요?, 여러분들은 평상시 밥 먹고 살아가는 거 별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중환자가 입맛이 없다 하고, 밥 먹기를 거부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은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방귀를 끼고 화장실 가서 볼 일 보는 것도 이것도 평상시에는 무슨 감사의 제목이겠냐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작정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의 "감사"는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뭐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는 물론 안하는 것 보다 낫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의 감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작정기도도 하고, 작정 금식도, 작정 헌금도 하는 것은 작정된 감사를 드리는 행위이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작정된 응답을 받고자 함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감사를 적립하라 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신용카드 외에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인트 적립식 카드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 물건값의 몇 프로를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중에 모여지면 돈으로 환산하여 쓰게 되는 것입니다.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밝은 웃음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좋은 인상이 누적됩니다.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에 교양과 지식이 누적됩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 신앙이 누적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들이 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려고 하시면 무엇인가 가슴에 남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누적되고 또 적립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것에도 늘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언제나 하늘에 적립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겨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적립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마일리지 가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혹시 너무 적어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닌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감사의 포인트가 많이 누적되어 있으십니까? 성도님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더욱 채워지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11월 28일 [대림절 첫째주일] 설교

본 문 : 히브리서 10:32~39

제 목 : 정답은 믿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문제 앞에서 우리는 힘겨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인생에는 정답이란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지만,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정답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정답이 될 수 없으며, 허탄하고 망령된 우상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란 속에서 그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마디로 환란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배교를 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느냐? 과거에 너희가 고난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냈었는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때 하나님을 먼저 떠 올리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십니다. 노아와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홍수로 인해 다 죽었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때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영으로 깨어있는 살아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깨달을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만사를 무의미하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예수 믿는 것도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계속 침체에 빠지고 침륜(沈淪)하게 됩니다. 뭘 해도 의욕이 없고, 수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면, 기계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영적 싸움에서 담대해지십니다. 더욱더 신령한 영성의 생활들로 인하여 담대한 신앙을 키워나가, 늘 하루하루의 삶에 승리만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응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 무관하지 않지만, 대부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상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돌린 겁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놔 두고,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떠 올릴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으며 인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도 믿음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정답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5일 [대림절 둘째주일] 설교

본 문 : 요한복음 21:1~7

제 목 : 이제는 뛰어들어야 할 때

베드로는 물과 관련이 많습니다.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도 그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곳에서 기적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기도 하셨고요. 지금은 직접 바다에 풍덩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물과 관련된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화가 모두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모두 다 깊은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깊은 곳을 찾아가 그물을 내려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요, 깊은 바다에서 기적도 경험하고, 생과 사의 경계에서 은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뛰어들기도 하고, 빠져 들기도 하고. 이렇게 온 몸을 담귀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욱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저희에게 2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이레”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느냐? 못 보고 살아가느냐?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이레” 그것을 우리가 보고, 또 알고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고서도,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모리아 산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시권에 뿔 걸린 숫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밖에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사명만 생각되고, 눈으로는 이삭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뿔 걸린 숫양을요.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능히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일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 제물이 이삭을 대신한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이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삶에도 없을까요? 아뇨.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엔 크리스트의 은혜**입니다.

엔 크리스트⁵⁾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보낸 축복은 갈릴리 바다에 숨겨져 있었으나 바다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바다에 숨겨져 있었지만, 바다에서 밤새도 건져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는 153마리를 건져 올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이요, 주님을 통해서만 건져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병이어는 빵과 고기 속에서 기적적으로 나오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오는 축복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던 포도주 기적은 물항아리에서 나온 기적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나온 기적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배달되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모두를 위해 배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재앙은 낭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대 재앙은 병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대 재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의 보화를 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의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 ἐν Χριστῷ[고대그리스어]. In Christ[영어].

2021년 12월 12일 [대림절 셋째주일] 설교

본 문 : 말라기 3:1~6

제 목 : 두려움의 심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심판의 날에 나타날 마지막 징조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24장 9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즘이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조롱하고 멸시하고, 목사라고 하면, 우습게 알고,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매도하고 경멸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들이 어찌하면 지금의 때와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지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목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심판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도 한 번 보십시오. “언약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홀연히 갑자기 생각하지 못할 그 때에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시면 준비 없이 살아 간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심판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도 나름대로 “죽음은 예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은 예비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죽기 살기로 기도로 매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아직 죽기 살기로, 기도로 매달릴 만큼의 절박한 상황이 없으셨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기도의 절실함을 못 느끼셨기 때문이든지, 이 둘 중의 하나이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그 때는 분명히 옵니다. 내 문제 때문이든, 내 가족 문제 때문이든,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드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 문제 가지고 눈물을 쏟아내는 차원을 떠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라도, 울고, 또 울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보고 싶어하신다면,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더 이상 내 신앙, 내 믿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제 자리에 정리정돈을 잘 시켜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하라는 메시지요.

그리고 또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마치 금을 제련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금을 제련하고, 다이아몬드를 제련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분리시킬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탁 할 때에 때를 제거하는 잿물처럼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악인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제련된 금과 같이 모든 세상의 때를 제거하는 잿물처럼 정결함의 중심에서 주님 모셔 가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와는 변하지 않으신다” 예전 성경에는 “반역지 아니하신다” 라고 표현했었어요. 절대 변하거나, 변경되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 하십시오. 늘 오늘 하루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 가십시오. 내 믿음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빨리 찾아 가십시오.

2021년 12월 19일 [대림절 넷째주일] 설교

본 문 : 누가복음 10:30~37

제 목 : 열린마음, 퍼주는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해자인 강도, 그리고 강도에 의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그리고 이 상처 난 피해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피해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소욕(所欲)을 위해 누군가를 해하고,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런 사람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처받은 피해자를 물심양면으로 살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 일 아니다 하여..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레위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내 일 아니다 하여, 바쁘고 분주하다 하여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제일 많습니다. 아마 그 부류에 우리가 제일 많이 속해 있기도 할 겁니다.

본문의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외면과 무관심과 방치가 계속 되었다면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구세주로 짠 하고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은 사회적 냉대와 질시를 받은 민족입니다. 신앙의 혈통의 순수를 잃어버린 혼혈민족이라 해서,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혈통이 무슨 상관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법도를 많이 알면 무엇하겠습니까? 행치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법도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눈 앞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자의 모습을 기뻐하겠습니까?

본문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실천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그리고 감각이 다 열려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흘려보는 건 보는 게 아닙니다. 얼핏 보는 것도 보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하는 건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마음과 직결되어 질 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보십시오. 눈이 열려, 강도 만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또한 그는 발이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로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습니다. 일종의 소독제 역할도 하는 거죠. 손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가서 돌보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부리는 짐승까지 대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주머니까지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노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 온 몸 전체가 다 열려 있습니다. 강도와 아는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보상을 원해서 하는 행위였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는 겁니다. 그저 베푸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베풀 듯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주고, 그냥 베푸는 겁니다. 29절 말씀에서 실제 율법사의 “내 이웃이 누구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하면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질문을 바꿉니다.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의 중심이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상대방의 필요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이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갚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2021년 12월 26일 설교

본 문 : 로마서 8:18~25

제 목 : 올 한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2021년도를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을까요? 나는 내 가고자 하는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삶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일까요?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주시겠지’하는 이런 맘을 갖고 한 해를 사셨다면 하나님의 동행이 별로 안 느껴지셨을 겁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보폭에 내 보폭을 맞추는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건 맞습니다. 때론 우리를 억지로 끌고, 잡고, 이끄셔서 가고자 하시는 대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진 않으세요. 항상 이러시면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나, 손녀들을 억지로 데리고, 억지로 끌고, 안되면 안아서라도, 업어서라도 데리고 가려고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도 힘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만 우리를 양육시키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보폭에 맞추고, 뒤처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갓난아기에게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 아기에게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충분히 걸을 수 있고, 충분히 뛸 수 있는 성인의 믿음을 가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그건 불순종이고 역행이지, 동행이 결코 아니죠.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선회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과연 올 한해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왔을까요? 올 한해의 삶을 결산하려고 하다보니,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은 신앙인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며, 회개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디. 즉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주의깊게, 관심있게, 어떤 자녀가 이 시국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와 함께 지금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대면이라는 명분으로 움츠리고, 후퇴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홀로 걷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 이런 때, 더 불꽃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남과 비교하여 나를 돌아보는 신앙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소망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려고 하면, 과거에 내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늘 떠올리며 비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신앙이 좋았다면 빨리 그 신앙으로 회귀하고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비교급 신앙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지금은 이런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진단이 나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비교급 신앙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망나니였지, 내 신앙이 엉망진창이었지, 지금은 결코 그런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 나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잖아’ 이렇게 자각하면서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비교급 신앙입니다. 사도바울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 같은 하나님의 사도를 돌로 쳐 죽인 무리의 선동에 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결코 면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씻을 수 없는 죄도 속량 받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도로 불러 주셨는데.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28가지의 고통이 아니라 100여 가지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난 이겨낼 수 있다는 신앙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삶이 지금 성도님의 삶을 비추는 자화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고대하며, 2022년도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